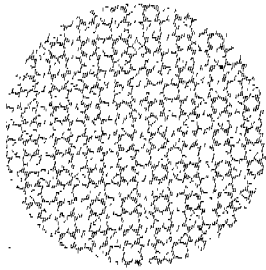


電氣工業民間協議會 의 運營方針

Operation Plan for Private
Conference of Electric
Industry



朴 敬 燮

電氣工業民間協議會 委員長

産業界에만 몸담아 온 本人이 금번 結成된 電氣工業民間協議會의 委員長 자리에 올라 두번의 모임을 가졌다. 이제 갓 새로 조직된 모임인데다가, 本人 또한 이런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經濟体制의 民間主導의 轉換 추세에서 볼 때, 매우 時宜適切한 모임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8·15와 6·25를 거치면서 누가 우리 韓國人에게, 오늘의 工業發展相이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8·15는 우리에게 經濟的自由를 가져왔으나 36年間の 暗黒期 뒤에 물려받은 것은 인플레이와 物資不足으로 인한 極甚한 혼란이었으며, 6·25는 그나마 남아있던 産業施設까지 廢墟로 돌려 놓았다. 그런데 이 廢墟 위에서 우리의 經濟는 지난 1953年 67달러에 불과하던 GNP가 1984년에는 1,999달러로, 産業發展의 尺度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發電量은 지난 1946年 42百萬KWH에서 1984년에는 53,808百萬KWH로 成長할만큼 엄청난 發展을 이룩하였다. 실로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大役事였다. 라인江의 기적과 같은 漢江의 奇蹟을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經濟的 成長은 政府의 強力한 開發意志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政府는 輸出第一主義를 표방하면서 이에 관련된 각종 法令을 통해 수출의욕을 고취시켜 이 결과 1946年 354萬 달러이던 수출량이 1984年 2,924,500萬달러로 증가하였는가 하면, 年 10%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0年代 후반에 이르러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되어 왔던 政府主導經濟는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政府의 지속적인 輸出第一主義政策과 1970年代 후반에 추진된 重化學投資는 과잉투자 내지는 市場確保의 未洽등으로 극히 否定的인 영향을 가져왔고 여기에 걸친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전반적인 世界經濟의 沈滯는 우리 經濟를 더욱 惡化시켜 1980년에는 1962년에 우리 경제가 본체도에 오른 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즉 우리의 경제는 資源波動에 따른 國際的인 成長의 한계와 外債問題, 先進國의 輸入規制등 惡化된 경제여건을 打開해갈 수 있는 本質과 充分한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한 채 政府의 保護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成長에 대한 誇大弘報는 제 3국, 특히 美國으로부터 「株式會社 日本」에

비유해 「株式會社 韓國」, 즉 第2의 日本視하는 警戒의 視角까지 초래케 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했다.

開發初期段階에서는 妥當性を 가졌던 政府의 경제주도는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화함에 따라 無力해지고 오히려 많은 시간, 外貨, 資材 등의 무수한 社會經濟的 費用을 發生시키는 非能率의 要因으로까지 作用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責任을 政府에만 局限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責任 또한 우리들 모두 즉 官·民·產業界·學界 모두 같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政府가 더 이상 모든 產業政策을 決定하고 動機賦與까지 했던 지난날의 역할을 계속하여 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當爲로까지 要請되는 政府 影響力的 減少는 수 많은 民間經濟主体者들의 自律的 決定이 收斂된 政策의 樹立 및 實施의 必要性을 增加시켰다. 이러한 狀況의 變化에 임해서 민간경제 주체자들은 종전과 같은 依存的이고 特惠追求의인 態度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경제의 主体임을 再認識할 것이 요청된다. 즉 종래의 否定的인 對政府 關係로 부터의 短期的 利益의 한계를 깨닫고 끊임없는 창의와 革新으로 경제능력을 배양하여, 감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최근 몇년간 政府主導經濟로 부터 民間主導經濟로의 轉換의 필요성에 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환에 따른 作業 또한 단순히 政府의 어느 한 機關에서만 할일이 아니다. 정부 외의 보다 많은 사람의 意見을 모아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보다 工業化가 많이 뒤졌다고 생각되는 이 나라는 이미 1984년에 D. G. E. I Electrical Inspectorate 라는 輸入檢査制度를 마련하고 그 施行令까지 제정했다 한다. 선진국의 市場開放壓力에 밀려 어쩔 수 없이 開放政策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리의 경우, 말레이시아처럼 開放에 對備하는 事前準備가 얼마나 치밀한 연구되고 마련되었는지 反省해 볼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經濟가 政府主導만이 아니라 민간경제주체자들의 보다 폭넓은 意見을 수렴한 것이었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解消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각종 法令整備에 민

간의 참여가 유도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產業政策의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 政府 또는 學者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반영하여 健實한 前進, 실속있는 前進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民間의 의견을 수감할 수 있는 제도적 裝置로서 本 民間協議會가 조직된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金融界·產業界 등에서 民間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無事安逸과 利權追求에만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정부의 태도 또한 바람직한 것만이 아니어서 本然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命脈만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직된 民間協議會도 과거 類似團體들이 工業全般에 대해 專門性이 약한 政府當局의 經濟政策樹立을 뒷받침 못해 무수한 試行錯誤를 초래했던 前轍을 밟지 않고 질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民間의 自發的이고 脫我田引水의인 자세와 함께 협의회의 의견을 과감하게 肯定的으로 吸收·收斂하는 政府의 態度 또한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電氣工業은 짧은 기간동안 높은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構造的으로 많은 難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電氣工業 특히 重電機產業은 輸入代替產業에서 輸出主導產業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그간의 성장 패턴이 산업의 長期合理化戰略과 產業基盤의 構築없이 短期利益 위주의 政府依存的 外形第一主義成長만 중시해옴에 따라, 1970年代 후반부터 시작된 國內不況과 더불어 그 構造的 脆弱性을 드러내어 政府의 調整을 불가피하게 했다. 또한 國際競爭에 있어서도 그간의 輸出戰略이 技術開發, 品質向上, 價格合理化 및 國際 마케팅의 基本的인 問題를 도외시한 나머지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다. 製品의 낮은 國產化率, 原資材 및 部品の 높은 海外依存度도 문제이며 특히 技術의 導入과 消化能力, 獨創的인 開發能力의 不足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長期的 眼力에 의한 產業基盤의 確立, 專門化와 系列化에 의한 產業基盤의 強化, 經營合理化와 產業體質의 強化, 國產化 促進과 輸出採算性 提高, 技術의 向上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상황이 이런만큼 이번 工業高度化法에 의해 발족

된 本 民間協會의 역할 또한 중차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비록 政策諮問을 目的으로 한 他生的인 機構이기는 하지만 運營의 妙를 최대한 살린다면 全体電氣工業界의 發展을 추진함에 있어 政府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주체적으로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深度깊은 협의와 되풀이 되는 연구접토를 통해 강구함으로써 業界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政策에 반영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성격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彌縫的이고 姑息的인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지나친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달성

하려고 서둘다가 많은 試行錯誤를 겪었던 과거의愚를 생각하여, 政策의 優先順位와 시간적인 先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 協會를 운영함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협의회가 발족된 그 취지를 담당자들은 물론 모든 民間經濟主体者들이 主体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이런 바탕위에서 우선 첫 단계로 委員들 各者가 自發的으로 電氣工業의 育成方案이나 業界의 隘路事項을 導出·蒐集할 것이다. 그 다음 이 導出된 內容 中에서 계속 論議의 餘地가 있는 議題를 가려 專門小 委員會式으로 조사·검토하여 政府의 政策決定에 反映해 보도록 할까 생각한다. (暎星重工業副社長) *

● 協會消息 ●

第10回 國內産業施設 視察 실시

11. 5 ~ 7 3일간 會員社中堅 32名 참가
金星計電 등 6個 우수産業体 견학



쌍용양회 동해공장



금성제전을 방문한 일행이 청주공장 정문에서

제10회 국내우수산업시설시찰이 11월 5일부터 7일까지의 3일간, 회원사 중견간부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본협회 金光錫 사무국장이 인솔하는 동시찰단은 첫날인 5일 淸州에 있는 金星計電(주)에서 제철제조공정의 견학과 「V. V. V. F 및 에너지절감·P.C와 자동화」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일행은 이어 慶州를 거쳐 다음날 6일에는 蔚山 現代重電機(주)에 도착. 변압기, 발전기, 수배전반등 중전기 제작공정을 보고 「고효율 유도전동기」에 관한 세미

나에 참석했다. 일행은 다시 이날 하오 現代重工業과 月城原子力發電所를 돌아보고 浦項의 浦項綜合製鐵에서 年間 910만톤을 생산하는 조강생산공장을 견학한 후 하오늦게 백암온천에 도착, 이날의 피로를 풀었다.

일정 마지막날인 7일에는 蔚珍의 성류굴 관광을 마친후 東海의 雙龍洋灰工業의 東海공장과 부평공장의 석회석 채굴현장, 시멘트제조공정등을 보고 이날하오 늦게 서울에 돌아왔다. *